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古墳群) 3면에서 계속

뉴스 다시보기

낙동강 흑두루미 이동통로 복원, 철새들의 마음으로

겨울진객 흑두루미, 구미 낙동강 해평습지에 '첫 선'

(2016. 10. 25. 불교방송)



구미 해평습지 흑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가 낙동강 분포의 북쪽한계를 보인다. 창원의 주남저수지는 큰기러기와 큰고니, 재두루미가 월동하거나 도래한다.

낙동강하구는 다양한 철새가 오지만, 우리나라 최대의 큰고니 월동지이다. 이처럼 낙동강 습지는 큰 눈으로 보면 30~40km의 거리를 두고, 징검다리처럼 철새가 이동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 북극에서의 이동거리, 주변 농경지와 작은 저수지 분포 등 필요한 서식환경에 따라 철새가 낙동강 습지를 골라 종(種)마다 다른 습지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다.

강의 변화에 대한 평가는 분야별로 다루어야 하겠지만, 낙동강 유역의 철새들의 터전은 수리수문이나 토목공학, 조경, 경관적 관점으로부터 다루지 말았으면 한다. 멸종위기종의 먹이터이며, 쉼터인 낙동강 유역의 도시개발 패턴이나 강 주변의 개발은 "배산 임수" 경관 모습이 강과 하천부지 및 제방주변을 이용하는 개념으로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다. 낙동강을 크게 변화시킨 4대강 사업으로 해평습지의 두루미들이 감소하고, 낙동강하구의 쇠제비갈매기들의 번식이 소멸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흑두루미나 재두루미의 낙동강 이동통로는 지난 2~3년 동안 큰 무리가 서해안으로 옮겨가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이 엘니뇨, 라니냐, 북극진동 등과 같은 기상요인도 있고, 소들의 먹이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의 증가나 각각의 조류 종에게 알맞은 먹이자원과 습지의 모습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 요인을 파악하여 습지를 복원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낙동강 두루미의 이동 시작습지인 해평습지에서 태풍으로 쓸려온 모래톱 하나가 없었다면 흑두루미와 재두루미를 잃어버릴 뻔했다. 생물 종의 서식에 대한 두루뭉술한 분석이 아니라, 강의 특성, 종의 생태적 선호도, 기상 조건 등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통해 낙동강 철새들이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복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다.



박희천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지면안내 » 1면 녹조와 먹는 물 이야기 & 뉴스 다시보기 / 2면 기고 & 현장인터뷰
3면 문화 & 연구동향 / 4면 소식 & 독자참여

녹조와 먹는 물 이야기

태풍 차바(CHABA)의 교훈



태풍 차바(CHABA) 피해

올 9월 28일 오전 3시 북태평양 상에서 발생한 제18호 태풍 차바는, 10월 5일 오전 제주도 동쪽에 상륙하여 남해상을 거쳐 부산과 울산 남부를 지나며 대한민국을 빠져나갔다. 제주 고산에서는 역대 태풍 중 최고에 해당하는 초속 56.5m의 강풍이 기록되면서(최대기록 60m/초), 많은 피해를 남겼다. 특히 울산이 큰 피해를 입었다. 오전 10시~12시 사이 2시간 지속 강수량이 160mm가 넘는 호우로 태화강이 범람했으며, 이는 재현기간 500년 빈도 지점강수량 1472mm를 초과하는 극한강우에 해당한다. 10월에 발생한 태풍으로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태풍이었음에도 언론이나 국민들의 큰 관심과 주의를 끌지 못한 채 예상 밖의 피해와 아픔을 남겼다.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중 호우와 태풍 등 수해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수해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는 예전 같지 못하다. 작년과 재작년의 수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이 우리의 경각심을 느슨하게 한 것인지는 모르나.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의 불확실성과 극한 수문사상의 변동성 증가로 인한 위험성은,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길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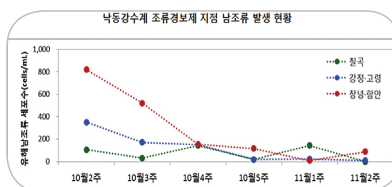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재해 특히 수해 방지 대책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문제는 아무리 훌륭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운영·관리와 실천에 각별한 경각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작년 8월부터 시작한 중부지방의 가뭄은 강수량 측면에서는 역대 3위에 해당하나 전년도부터 연속된 가뭄으로 현장에서의 고통은 실로 극심했다. 그럼에도 큰 관심과 노력으로 기술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가뭄의 어려움을 극복한 것은 다행스럽고 좋은 사례다. 올 가을 극심한 피해를 남긴 태풍 차바는 수해를 줄이기 위한 우리들의 보다 적극적인 인식 전환과 대응 의지를 촉구하는 교훈을 시사하고 있다.



서용원
영남대학교 교수

녹조예보

낙동강 남조류 감소 추세



11월 초, 현재 낙동강 주요 지점의 수온은 15℃ 전후 범위로, 남조류 세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낙동강수계 조류경보제 대상지점인 철곡,

강정·고령, 창녕·함안지점의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0~88 세포수/mL 범위로 현재까지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기준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갈수기에 접어들면서 강우량 감소로 인한 방류량 변동, 국지적인 정체수역 형성 등 환경 여건에 따라 낮은 수온 조건에서도 증식 가능한 사상형 남조류가 일시적으로 출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이혜진 연구사

※ 녹조 발생현황은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 조류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에 살고픈 물고기들



김구환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낙동강, 특히 중상류지역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살고 있는 희귀한 물고기 3종류가 있다.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으로 지정한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꼬치동자게다. 이름이 독특한 것처럼 사는 곳도 제각각이다.

흰수마자는 몸길이 6cm 정도로 ‘독노구리, 돌모래무지, 돌모래미’등으로도 불리며, 머리에 4쌍의 희고 긴 수염이 있다. 낙동강 상류, 모래가 깔린 여울에서 주로 물속 곤충의 유충을 먹고 산다. 한여름 물이 얇고 여울이 있는 강에서 가는모래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작은 물고기 중 한 종(種)인데, 모래가 없어지면서 보기가 어려워졌다. 얼룩새코미꾸리는 미꾸라지처럼 몸이 길다. ‘수꾸때미, 수수꾸리, 조굴때, 호랑이미꾸라지’로도 불리며, 노란 바탕에 검정 반점들이 흩어져 있다. 낙동강 중상류 유속이 빠른 곳의 자갈 바닥에 살며, 주로 돌 표면에 붙어있는 매우 작은 식물을 먹는다. 힘이 좋아 물속 바닥을 헤집고 다니면서 상류에서부터 물속환경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일꾼이다. 꼬치동자게는 ‘빠가사리, 전기고기, 빠가사리, 짜가사리’라고도 불리며, 동자게와 비슷하게 생겼다. 동자게류는 날카롭고 단단한 가슴지느러미를 마찰시키면서 ‘빠각빠각’ 소리를 낸다. 몸은 동자게에 비해 짧고 가늘다. 상류의 물이 맑고 큰돌이나 자갈이 많은 곳에 살며, 야행성이다. 1996년 1월 환경부가 지정한 특점어종으로 허가 없이 포획할 수 없다. 2005년 천연기념물 제455호, 2012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으로 보호받고 있다. 낙동강에 모래와 자갈이 없어지고 흐름이 느려지면서 모래와 자갈, 여울을 의지해서 살던 물고기들은 차츰 살 곳을 잃어가고 있다.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보호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꼬치동자게가 언제 낙동강에서 사라질지 모른다.

한 종(種)이 사멸한다는 것은 소중한 유전자원의 소실일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구성이 무너지는 것이다. 어찌하면 낙동강을 생명이 넘치는 강으로 만들 수 있을까? 무엇으로 살고픈 물고기가 건강하게 지낼 생태태전이 보존될 수 있을까? 모두의 관심과 지혜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낙동강 수생태계(어류) 변화와 울산의 강



문호성
울산강살리기
네트워크 대표

최근 들어 낙동강은 녹조와 더불어 어족자원 고갈이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특히 창녕과 낙동강 하류에 거주하는 어민들은 생계수단인 어족자원의 고갈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고, 낙동강 보 완전개방 국민소송인단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50cm 정도의 강준치가 1m 내외의 대형종으로 변신해 집단으로 서식하며, 다른 어류의 씨를 말린다고 한다. 또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에 따르면 “낙동강의 환경변화로 물고기는 과거 1회 조업 시 100마리를 잡았다면 지금은 겨우 1마리를 잡는 실정이다. 잡은 물고기마저도 간질환을 유발하는 마이크로시스틴 오염, 녹조 등으로 피부에 빨간 반점이 생겨 있으며, 리굴라 총충에 감염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잡은 물고기도 팔리지 않는다.”며 “공과금도 내지 못하는 절박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민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도 낙동강 원수를 전체 용수의 약70%(공업용수100%)정도를 매일 공급받고 있고, 이 과정에서 낙동강에서 서식하던 민물고기가 태화강과 회야강으로 유입된다. 그 결과 태화강은 낙동강에서 유입된 누치가 중하류 지역을 점령하여, 각시붕어 등 태화강 고유종의 씨를 말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야강에서도 최근 조사에서 50cm 이상의 강준치가 자주 잡히는 것으로 보아 언제 다른 어류들의 씨를 말릴지 모를 일이다.

‘뭇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처럼 낙동강 의존도가 높은 울산은 낙동강의 건강한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울산의 생태계도 안전할 수 있다. 낙동강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어민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다시 한 번 노력을기울여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과 생활 이야기

안개 속에 갇힌 사회



안개 자욱한 수변공원을 걸어보셨는지요? 물안개는 비가 내리듯 낮고 짙게 깔린 안개입니다. 강이나 호수, 바다 등 물이 있는 곳에서 일교차가 컸던 다음날 해뜨기 직전에 피었다가

헛살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바람처럼 소리 없이 사라져갑니다.

물 위에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안개를 바라보면서 상상의 날개를 펼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연락이 두절된 친구를 그리워하기도 하겠지요. 밤새 내려앉은 말 못할 사연을 날려 보내려는 듯 홀연히 사라져가는 물안개가 아쉬워 발길을 멈추고 카메라를 들어대기도 합니다.

물이 아닌 대기에 끼는 안개도 있습니다. 안개 속에는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 미세먼지와 대기를 혼탁하게 하는 오염물질도 섞여있을 것입니다. 시야를 흐리게 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 사회는 지금 혼탁한 안개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열 사람이 열 가지 말을 합니다. 잘못된 일은 꾸짖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일을 사실인양 부풀리고 입방아를 찧는 것은 언어 공해이며, 사회를 더욱 어지럽게 할 뿐입니다. 큰 소리의 소수 의견 뒤에는 소리내지 않는 많은 의견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안개를 말끔하게 날려 보낼 햇살은 어디서 찾아야 할는지요?

- 수필가 허봉조

현장인터뷰

낙동강중류권역 환경지킴이



환경오염 감시·계도 및 교육·홍보, 수질오염 사고 예방활동에 앞장서는 낙동강중류권역(김천, 구미, 고령 등) 환경지킴이 박숙경 팀장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과 활동상황을 들어보았다.

☞ 최근 시민들의 쉼터 및 체험 장소로 제공되고 있는 낙동강 수변의 캠핑장과 수상레저

사업 등으로, 강변이 환경오염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주말이나 행사철에는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가 넘치고, 종량제 봉투 제공에도 외면당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떡밥 낚시꾼에게 떡밥이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생미끼를 권장하며, 쓰레기는 되가져가거나 지정장소에 분리 배출하도록 계도·홍보하고 있다.

☞ 불법 농작물 재배와 관련 매일 두 차례씩 주민들을 방문·계도한 결과 불법으로 경작하던 곳을 주민들과 함께 꽃밭으로 조성하여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생활하수인 싼뜨물을 모아 싼뜨물 발효액 만들기, 폐식용유를 활용하여 유용미생물(EM) 세탁비누 만들기 등 수질오염 예방 및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 수준 높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대구경북환경보전협회, 지자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상·하반기 간담회를 갖고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환경에 대한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홍보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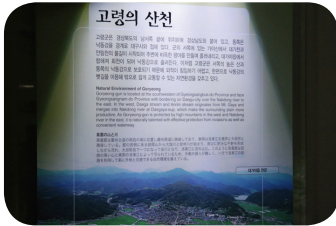
낙동강 곳곳을 누비며 환경실천의 최전선을 지킨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15명의 환경지킴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취재팀

낙동강 발원지를 찾아서

<제8편> 회천

고령지역 젖줄인 회천(會川)은 가야산에서 발원한 대가천과 소가천을 거쳐 합천지역에서 내려오는 안림천과 합류한 후 낙동강으로 유입된다.



유로연장 78km로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경상남도 합천군까지 흐르는 지방 1급 하천이며, 낙동강의 제1지류이다. 고령군 운수면에서 시작하여 대가야읍 본관리에서 소가천(小伽川)이 흘러들고, 대가야읍 동남하부지역에서는 낙동강 제2지류인 안림천(安林川:일명 웅담천)이 합류한다. 이후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에서 낙동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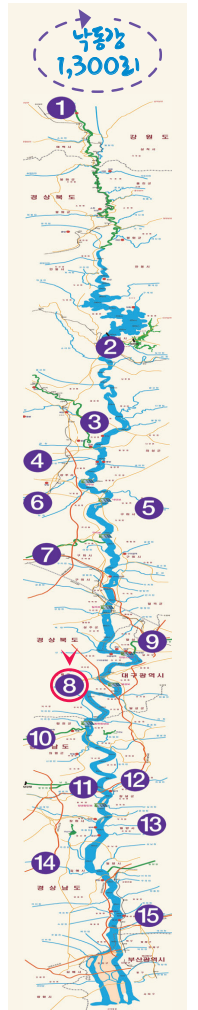
중류로 흘러든다. 여러 개의 하천이 한 곳으로 모인 하천을 모듬천 또는 회천(會川)이라고 부른다한다. 물 양이 많고 강가에 기름진 토양이 쌓여 있어 유역에 따라 곳곳에 충적평야가 발달하였지만, 여름철 장마 때는 순간적으로 강물이 불어나서 자주 수해를 입기 때문에 하천 양쪽에 제방을 쌓았다.

알대가 예전 대가야(大伽耶)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강을 따라 중요한 유적이 많이 발견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양전동 알터마을의 회천대교 아래 자리 잡은 고령 양전동암각화(보물 605), 안림천 변에 자리한 고령 안화리암각화(경북기념물 92)가 있다. 주위에 가야산, 주산, 대가야유물전시관, 김면장군유적(경북기념물 76), 고천원고지 등 문화재와 관광명소가 많고, 하천을 끼고 고령군 쌍림면에서 대가야읍을 거쳐 덕곡-성주 백운동-성주-대구로 이어지는 도로는 한적한 농촌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코스로 널리 알려져 있다.



참고자료: 두산백과 회천(會川) 편, 매일신문 (2011.11.23일자), 경북일보(2009.12.11일자) 등
- 사진제공: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취재팀

- ①황지 ②반변천 ③내성천 ④영강 ⑤위천 ⑥병성천
⑦감천 ⑧회천 ⑨금호강 ⑩황강 ⑪남강 ⑫계성천
⑬청도천 ⑭화포천 ⑮양산천



여행스케치

낙동강 발원지로부터 물따라 맛따라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古墳群)」을 찾아



대가야(大伽耶)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 먹거리

청정지역 도읍지 고령의 향토 음식으로 한우갈비살, 대가야해물생갈국수, 인삼도토리수제비, 갈치정식, 고령대가야진찬 등이 소개되고 있으나, 물이 흐르는 회천 주변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다.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 자기쓰레기는 되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문의전화: 고령군 054)950-6060

연구동향

•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낙동강 부유쓰레기 모니터링 추진



장마 등 집중호우 시 하천으로 유입된 다량의 부유쓰레기는 수질 오염 및 수생대계 교란, 경관 훼손 등의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하천 하구 주변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부유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못할 경우 장마시기 이후의 태풍 내습에 의해 해양으로 유출되어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히게 된다. 특히 낙동강 하구에는 많은 양의 쓰레기가 집적되어 남해상으로

유출됨에 따라 해안 지역의 피해가 되풀이 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경대학교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윤홍주 교수는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낙동강 부유쓰레기의 부산광역시 유입 및 이동 실태 조사·과제를 수행중이다. 동 과제에서는 부유쓰레기의 유입경로와 이동 실태를 조사하여 부유쓰레기 상습 정체 구간 파악 및 수거·관리방안을 수립, 사전 수거량 증대와 해양으로의 유입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본 과제의 조사는 기존의 현장 순찰 방식에서 벗어나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부유쓰레기 이동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어, 향후 능동적인 낙동강 부유쓰레기 관리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Now

부산시 시민공원·송상현광장, 산림청 「녹색도시 우수사례」 최우수 선정



부산광역시와 산림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2016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부산시는 매년 개최되는 공모전에 도시 숲 분야에 시민공원을, 가로수 분야에는 송상현광장을 응모했다.

산림청 심사 결과 미군부지를 시민의 품에 돌려놓았다는 점과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해 이용한다는 점 등 두 분야 모두 도시와 숲을 조화롭게 조성하여 잘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최우수 선정 사유로 인정받았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 숲위크숍'을 개최하는 동시에 시민공원 일원에서 걷기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취재팀

「경상북도 환경관계인 환경오염사고 예방실천 결의대회」 개최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환경사고 없는 안전한 경북 만들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경상북도 내 환경관계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16년 11월 5일(토) 안동시 탈곡공원에서 「제3회 경상북도 환경관계인 환경오염사고 예방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는 환경안전실천 결의, 화학사고 예방 퍼포먼스,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대비 시범방제훈련 등 화학안전사고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환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는 등 안전 인식 강화 및 지역 환경관계인들의 친목도모와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취재팀

「I LOVE Upcycling」 작품전시회 개최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10월 27일~10월 30일 울산 리갤러리에서 「I LOVE Upcycling」 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속캔, 유리병, 발포스티렌, 종이팩, 페트병, 플라스틱 등 6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만든 작품을 전시하여 환경의 소중함과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전시작품은 총 80여점으로,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16 환경예술전문강사과정」 수료생 21명이 참여했다. 이 전시회는 버려지는 자원이 훌륭한 작품으로 거듭나 또 다른 조형미로 표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취재팀

창원대, 5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선정 쾌거



창원대학교(총장 최해범)는 10월 26일 대전시 동계교육원에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주최로 열린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성과 보고대회'에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창원대는 2016년 10월 11일 환경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2015년도 운영성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이 상을 받게 됐으며, 이로써 창원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환경부는 매년 전년도 공공부문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관유형(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 등 7개)별로 발표한다. 5년 연속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우수기관은 창원대학교와 한국조폐공사 등 2개 기관 뿐이다.

-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취재팀

News Room

「2016 물사랑 이끄미 활동사례 발표회」 개최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물사랑 이끄미 활동사례 발표회」를 2016년 12월 1일(목)에 개최한다.

「물사랑 이끄미」양성 프로그램은 올해 5월부터 낙동강 수계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과 자연에 대한 다양한 환경교육과 체험학습을 진행해 왔다. 이 프로그램 참여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과 체험학습을 실시해 온 활동 사항을 중심으로 사례를 발표하고 활동내용, 참여도, 활동성과 등의 심사를 통해 우수한 학교에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부산지역 환경인재 취업역량 강화교육」 실시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11월 4일부터 12일까지 「부산지역 환경인재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환경관련분야 졸업(예정)자 및 취업준비생의 취업훈련을 통한 양질의 환경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부경대학교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이 교육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특강, 11 자기소개서 컨설팅, 모의면접 등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일자리 토크콘서트 '무(務)환(環)도전」 개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부산, 울산,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관련 직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환경직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진로 선택을 위해, 2016년 11월 28일(월) 부산 벡스코에서 「환경일자리 토크콘서트 '무(務)환(環)도전」을 개최한다.

이 토크콘서트에서는 환경정책 및 환경일자리 진로에 대한 특강, 공단과 환경기업 소개 및 전문강사가 직접 전하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像)'이라는 주제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독자참여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게재되면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낙동강수계 통합물관리 연구네트워크

발행·편집·인쇄 :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녹색환경지원센터 (5114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20 국립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416호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 대표전화 055-213-2768 | Fax 055-264-6889 | sym@gngec.or.kr